



강기정, 김민준과 함께 하는 사랑들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접속되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중...

로그인 여세초여

나는

말지 않는다.

누군가 너무 쉽게

이 세상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말.

그런 인간들은

인간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먹고 사는 지구라는 후성에 대해서

우주의 겉고도 그웁한 심연에 대해서

대면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인간들의 머리는 두쪽으로 쪼개져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말지 않는다.

누군가 너무 쉽게

우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말.

바꾸는 건 어려운 건데

왜 그런 말을 쉽게 하는가.

왜 그런 말을 그들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인간들이 바뀌지 않은 세상에서

너무 멀쩡히 살아가는 걸

난 너무 많이 보았다.

내가 믿고 싶은 건 이런 거다.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아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지금 떠난 여행은

불안하지만 즐거운.

두근거리는, 허릿한

작지만 확실한.



"뚝 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뚝 부러지는 척하는 지지혜

강김 정임 / 독지 (인문 3)

총여학생회 정후보

여고시절에, 공부를 한답시고 학교에 간 일요일에는 나를 포함한 공부하기 싫어하는 몇몇이 밥을 먹고 나서 어김없이 수다를 떨었다. 지난번 망친 시험에 대한 얘기부터 싫어하는 선생님에 대한 험담까지. 매일 봐도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우리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팔팔 쏟아놓았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가지, "나 오늘 변태(여기에 적당한 단어는 정말 '변태' 밖에 없다) 만났어." 매일 아침 버스에서 변태를 만난 경험, 학교 뒤에 자주 놀러오는 성기노출증 환자, 심심하면 컷볼과 어깨 여기저기를 주무르는 남자 선생님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내었고, 모두가 그런 경험을 최소한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우리는 그 변태들에 대해 실컷 욕하면서 짜릿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고, 어렵뽕한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또다시 버스를 타기가 두려웠고, 변태 선생님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지만, 그것이 혼자만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언제나 나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교실 안에 가두어졌던 그 은밀하지만 짜릿한 여성들간의 경험을 이제는 연세에서 공유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이 글을 읽는 당신과 나, 이제 여성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발화하는 것으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의 접속은 시작되었다.

- 79년 1월 울산출생
- 96년 울산여고 졸업
- 97년 연세대 인문학부 입학
인문 10반 정치경제학과 활동
- 98년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활동
- 99년 미스코리아 반대 프로젝트 모임
'KILL' 활동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여성노동' 활동
문과대 '여성폭력 학교' 기획
'99 여성연대관련 기획단
제2회 여성제
'여우야, 여우야 어디있니'
기획단장
제12대 총여학생회 정후보 출마

"이 안?"
이안은 '이건 아니다'의 준말이다.
세상에 아닌 일은 너무나 많고
아닌 일에 부딪혔을 때, '이건 아니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이름!

김임 은정 / 이안 (신문방송 3)

총여학생회 부후보

언젠가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간 적이 있다. 나는 자전거를 타지 못했었다. 그 알고 약해 보이는 두 바퀴 위에 나의 몸을 싣고 나의 두 발로 균형을 맞추며 달릴 자신이 없었고, 넘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 친구가 이끄는 2인용 자전거를 타면서, 그리고 내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바람을 풀고 달리는 상쾌함과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을 알았다. 그 함께 하는 즐거움이 나의 두려움 뒤에 감춰져있던 하고 싶음, 나의 두 발로 내가 가고싶은 곳을 향해 달리고 싶다는 마음을 일깨워주었고 지금 그것을 시도하려 한다.

나의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나 이외에 나를 규정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했음을 알았다. 그때 여성으로서의 자연스러움으로 즐겁게, 그리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들을 만났고 이 공간 안에서는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자연스러움을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제, 연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고 감춰져있던 우리의 하고싶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공간을 함께 만들고 꾸려나가고 싶다. 자, 이제 당신도 함께 log in ~~~?



- 78년 7월 대구 출생
- 97년 대구 경일여고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입학
신문방송학과 학회 comm.知樂 활동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활동
- 98년 3·8 세계여성의 날
연세 기획단 단장
beyond 기획 포럼 '포르노,
내게 거짓말을 해 봐' 기획
신문방송학과 학회 comm.知樂
학회장
사회대 '여성폭력 자치규약
자료집' 발간
- 99년 제12대 총여학생회 부후보 출마

1999

올해의 연세 女友

19일, 밤새 총여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 총여학생회의 생활도서관
강제철거에 대한 입장

두입술, 여성학 생활도서관, 애뜨래에 대한 11대 총여의
강제 철거 사건

- 엄독실전에 두입술 부크르다. 내 입술 독리도~

연세대 주차 도우미 사건

- 운전자 여러분들의 정신이 번쩍 들만한 하침단 서비스!
출근길 내수 한잔

대동제 기간, 11대 여성창조 총여학생회의 금연금주운동

- [후적 6개월], '술과 담배, 총여의 관계를 밝힌다.' 텀,
끝내 관계를 밝히지 못해 자진 해산

연세대 익게 '이대생에 관한 성폭력적 발언' 사건

-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라!' 고추나라 고추야기 원격면
즉각 개봉용 해봉용 골 비디오로 출시 (후속작 '작은 고추보다
후추가 더 맵다!' 개봉 방두)

제1회 안티 미스코리아대회

- 미스코리아가 많으면 섹스도 터지지.
미스코리아가 많으면 안돼... 안돼! 애드립유우

무엇을 이야기 하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별책부록! 속이지기도 몰래 따 대가 개인 분들을 위한
석고복대 10개와 야직도 근절하려는
입대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별개집계 1세트를 드립니다.

동두천 기지촌 여성 이정숙씨 사망사건

- 저기 한집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 동두천 마군 이사 無!!

제 1회 월경 페스티벌 "유혈남자"

- '지금 이 순간 세계 여성의 1/5이 생리 중입니다.', 어머너두너?

'99 여성미술제 '팔쥐들의 행진'

- 낯선 고녀들에게서 내 자신의 향기가 난다.

제 2회 여성제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 응답을 기다려주는 주...

농협 사내부부 중 여성만 정리해고사건... 소송 진행 중

- IMF 사태 농협의 원자유저축상품, 한달 내내 씨도
입금이 절반밖에 안돼...



글 쓰는 순서

Intro

'99 연세 무엇을 이야기 하나...

4

중론 - 끝나지 않은 이야기

8

중여학생회론 - 응답하지 않는 총여는 가라!

10

로그인 연세 중여 공익

14

당신의 일상적 모험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정보가 되고, 여성들의 정보가 역사가 됩니다.

Welcome to Yonsei ^{wo}men's University?

연세 안의 여성들의 다르지도 같지도 않은 이유

기획글

기독교에서 여성운동은 가능하다!

18

'홀로'인 나와 당신들에게 띄우는 편지- 침묵하지 않는 자의 즐거움

28

성폭력 상담소, 있으면 다냐? 성폭력 학칙, 제정만 하면 다 해결되나?

34

일상을 구성해내는 공간,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일상

38

인터뷰

여성주의 웹진 (Cyborg Generation in Delta Space)을

24

준비하고 있는 여성주의자

만 화

여성학 버전업이 필요하다!

39

지지합니다! 함께합니다!

2000년 여성대행진

20

나의 결혼을 알리지말라 -- 농협 사내부부 중 여성정리해고 사건

32

동두천 기지촌 여성 이정숙씨 사망사건

40

2000년 학생법정

44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알아? 나 얼마 전에 공연했다! 예뻐~

22

'유혈낭자'가 내게 남긴 것

26

여성운동은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31

로그인 연세총여! 한눈에 보입니다

42

끝나지 않은 이야기

자신의 얼굴 두께를 자랑하는 인간들만 아니라면, 이제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 정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얼마전 방송되었던 어느 드라마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문제를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보여주었고, 신문의 사회란 한 구석에서는 연일 여성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학내에서도 이제는 여성 비하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예전만큼 어렵지는 않게 되었다. 여섯 개에 달하는 여성학 수업 뿐만 아니라, 타 수업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기대어 여성들은 원래가 수동적이고 압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덜떨어진 인간이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의 일상이고 여성의 현주소다!

라고 선뜻 말할 수 있을까?

2 그렇다면 여전히 여성이기에 가져야 하는 밤길의 공포, 여성이기에 더욱 좁아지는 취업의 문과 배가되는 학점 걱정, 무수하게 여성의 육체를 더듬고 지나가는 정그러운 시선들 속의 여성 육체의 대상화, 여성이기에 추가되는 러쉬 아워 지하철에서의 찔찔함, 사이버 공간 익명 게시판에 쏟아지는 언어의 쓰레기들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편견과 억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스라한 고무줄 놀이의 기억조차 잃어버리고, 남성의 놀이문화에 버금갈 수 있는 여성들의 문화가 없다는 것은 너무 익숙해져버려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공부하기 싫은 날의 공강 시간, 커피한잔과 벤치가 지겨워지면 어김없이 학교를 나가면서도, 학내에서 펼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문화적 욕구를 상상하지 않는다.

3 보수화 바람은 불과 10여년 전과도 전혀 다른 여성의 지위 변화를 이루어낸 (이를 그간의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운동 자체를 그 적으로 삼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제기들은 곧바로 남성을 적으로 삼는다는 끝간데 없는 심연 속으로 빠져버린

다. 여성운동가들을 남성과 가족 파괴범 정도로 이미지화하는 속에서,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인, 열등감으로 자신에게 매몰되거나 혹은 자만심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어떤 동일한 집단으로 단일화한다. 슬픈 일은 서구에서 신보수주의적 주장을 등에 업고 여성운동을 초토화시켰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 또 다른 여성운동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남성과 함께하고 남성도 피해자라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 발뚎고 있는 지반은 어떻게 남성과 함께 하고, 왜 남성이 피해자인지를 설명하는 대신, 우리는 남성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로 여성주의가 그동안 남성을 적으로 삼아왔다는 담론을 배경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너무나 여성적인 여성주의자와, 여성주의적 정치에 동조하고 함께 하는 많은 남성들, 여성운동 내의 섬세한 차이와 다양성들은 사장되어 버리고 이미지만 남는다. ‘여성주의자 = 저 혼자 잘난 줄 아는 인간’이라는...

여성해방운동이란 기껏해야 남녀관계의 사소한 불평등을 트집잡아 권력관계 운운하는 좀 배운 여자들의 배부른 수다라고 깔보는 인물들이 세상에는 술하게 많다. 그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게 최고라는 것이다. 이러한 묵인 속에서 한 개인의 불행은 그저 그 자신이 못한 탓으로만 돌려진다.

4 우리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여성이라는 일반적 범주 밑에 묶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관심사와 문제들에 있어서는 제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공대에 있는 여성들은 타단대 여성들과는 또 다른 편견 속에서 살아간다. ‘공대 여성은 여성도 아니다’라는 식의 편견과, ‘여성이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느냐’는 모순된 주장들은 사이버 공간 익명게시판 등에서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문화적 끼를 발휘하고 싶은 여성과 고시를 준비하는 여성 사이의 관심사는 또 얼마나 먼 것일까? 언제나 반복되는 많은 주장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인 울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개인들, 여러 범주들을 무시한 채 진리라는 이름으로 학우들에게 강요해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남성과 여성이 같거나 다르다는 주장은 선거판의 지루한 논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일상과 현실정치는 항상 그 위로 펼쳐진다. 목소리만 높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성하고 작은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여성운동은 그렇게 지속되어야 한다.

1.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제 11대 총여학생회

총여가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일 년의 임기 동안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1월 20일 총여실 안의 '자치 단체 기물 철거 사건'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문제였다. 10대 총여와 공존하면서 총여실 공간을 나누어 쓰던 몇몇 자치 단체의 기물을 11대 '여성창조' 총여가 철거하는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서로 간에 비판과 되받아침이 오갔고 결국 11대 총여에서 사과문을 내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다. (53호 연세지, 16쪽)

11번이나 총여학생회가 세워졌고, 벌써 12번째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1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이렇게 총여학생회가 연세인의 초강력 관심(?)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올해 1월 총여학생회가 늦은 밤에 몰래 총여실에 있던 여성자치단체의 물품을 강제로 철거한 이후, 7일 동안 총여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종적을 감추어 버렸던 사건이 얼마나 많은 연세인의 입에 화자 되었는지는 연세지에 언급된 대로 당시 나우누리 연세동을 가득 채웠던 무수한 글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당시 11대 총여학생회가 자치단체의 물품을 강제철거하면서 내걸었던 논리는 '총여실은 여학우들의 투표로 당선된 총여의 집행부들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간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왔어야 하는 극한 상황이라도 대표성을 인정 받지 못한 자치단체들은 총여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11대 총여학생회는 연세 여학우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총여학생회로서의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대표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표성이 어떠한 대표성을 의미하는가, 즉 대표성이라는 전방 안에는 양꼬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총학생회도 아닌 총여학생회로서의 대표성이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이다.

대표성에 시비거는 자, 그 누구냐?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후보자 추천인 서명을 받는다. 그 후보자 추천인 서명의 '하고싶은 말'란에서 심심치않게 등장하는 문구는 '처음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이 말은 얼마나 많은 학생회가 선거시기에 한 학우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않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0%라는 투표율을 가까스로 넘기는 학생회 선거의 현재 모습에서 학우들이 바라는 학생회는 한 번의 선거로 독점되고 고정되어 버리는 학생회는 아니다. 50%가 조금 안되는 투표하지 않은 학우들과 1%가 되는 49%가 되는 간에 당선된 선본에 표를 주지 않은 학우들의 정치성은

선거를 통해 획득된 대표성은 일년의 학생회 사업과 그 사업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언제나 변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존재한다. '대표성'이라는 전방의 양꼬는 바로 6천 여학우라는 단일한 실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기반한 대표성은 결코 고정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존재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획득된 대표성은 일년의 학생회 사업과 그 사업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언제나 변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의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의 활동에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면 그 누가 학생회 선거에 투표를 하겠는가? 누구나 누누이 말해왔듯이 학생회의 주인은 우리 모두일진데, 학생회의 주인은 당선된 선본에 표를 준 학우들뿐만이 아니라 당선되지 못한 선본에 표를 준 학우들, 그리고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은 학우들, 학생회 질서를 거부하는(혹은 학생회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자치단체를 꾸리며 살아가는 학우들 모두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총여실은 대표성을 인정받은 총여학생회 집행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여성자치단체들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올해 1월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선거기간에 인정받은 대표성은 엄연히 학생회의 주인인 자치단체를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아도 된다고 학우들이 선거기간에 '꽂' 하고 도장을 찍어준 위임장은 아닐 것이다. 총여학생회의 대표성의 실체가 '우리 6천 여학우들은 총여학생회에 우리의 '모든' 권리를 위임했습니다'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자치단체들이 총여학생회를 같이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여기에서 문제의 지점은 일반 학생회와는 다른 '총여학생회'로서의 대표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간다.

2. 총여학생회는 뭐하는 공간이야?

여기에서 또 한번 선거철의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선거철만 되면, 그리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총여학생회는 뭐하는 공간이야?'

총여학생회는 일반적인 학생 전체(여성이든 남성이든)의 공간인 일반 학생회와는 달리 존재의

응답하지 않는(응답할 줄 모르는?)

총여학생회는 가라!

대학이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와는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파라다이스가 아닌
 이상 대학 내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직시하는 가운데 대학 내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여성주의를 확산시키는 공간이
 바로 총여학생회인 것이다.

기반 자체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총여학생회의 정치성이 드러난다. 대학이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와는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파라다이스가 아닌 이상 대학 내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직시하는 가운데 대학 내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여성주의를 확산시키는 공간이 바로 총여학생회인 것이다.

그러면 다시 강제철거 사건으로 되돌아 가보자.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철거사건 자체는 아니다. 사실 기억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은 그 사건을 자꾸 들먹거리는 이유는 그 사건으로부터 '총여학생회는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고 싶기 때문이다. 총여학생회는 그 당시에 아무런 독립적인 공간, 아니 누구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었던 총여학생회실의 여성자치단체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공간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했어야 하며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총여실의 일부분을 자치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한다. 왜냐구? 분명히 말하지만 총여학생회는 대학 내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며, 총여학생회의 재정과 공간은 총여학생회 집행부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고 싶다는, 혹은 사용하고 싶다는 학내의 여성들과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여학생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

3. 미완성의 아름다움 - 소통과 논쟁 속의 총여학생회

당연하다. 자치절서는 학생회 절서의 안티테제가 아니다. 모든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옥죄고 있는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은가? 여성운동은 여성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함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 일반이 느끼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성 개인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립 속에서는 철폐할 수 없는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총여학생회는 필요하고, 여성 개인의 힘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여성 일반을 어떻게 사고하느냐, 그리고 그 여성 일반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어떻게 전복시킬 것이냐는 부분에서 총여학생회의 정치성은 드러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측면에서 총여학생회가 전제해야 할 것이 선거에서 동의받은 이 정치성이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자신들의 활동과 입장에 대한 공격적인 논쟁의 장을 열어놓는 것, 그리고 그 논쟁 속에서 총여학생회가 독점하고 있는 공간과 재정을 원하는 여학우들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집단으로서의 여성 일반이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억압은 절대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6천 여학우라는 단일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당장 문대와 공대의 상황이 다르고, 중앙도서관과 생과대의 상황이 같을 수 없다. '개개의 힘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여성 일반'의 억압과 그 억압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그리고 총여학생회의 정치성이 이 고리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에 드러난다고 하는 어찌 보면 형용 모순인 듯도 싶은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인 예로서 이 문제를 짚어보자. 11대 총여학생회는 올해 여학생 휴게실의 금연화에 성공(!)하였다. 사실 많은 여학우들이 과방에 자욱한 담배연기를 싫어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여학생 휴게실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또한 많은 여학우들은 아직도 바깥에서 담배를 자유롭게 피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 있어서 여학생 휴게실을 찾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우리가 11대 총여학생회를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이런 두 집단의 여성들을 선 가르고 그 중의 하나를 택하는 것을 자신들의 정치로 삼았다. 그들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통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통계 조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이미 그들에게 '담배=임신해야 하는 여성의 육체의 해악'이라는 답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입장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가 '담배 피는 여학우'들을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다. 차라리 우리의 입장은 '왜 담배에 그토록 과대한 성적인 의미가 부여되는가? 어떤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담배를 피는 여성이 그토록 비난받게 만드는 작동원리는 무엇인가? 그 구성원은 어째서 이런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선부르게 여학생 휴게실을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권위적인 짓은 할 수 없다. 총여학생회는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논쟁하고 논쟁 속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부추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존재한다면 '여학생 휴게실 금연'이라는 하나의 답이 어떻게 진리처럼 강제될 수 있겠는가? 환기팬을 더 달 수도 있고 흡연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여학생 휴게실이 너무 작아서 혹은 환기팬 달 돈이 없다면 일정한 기간을 금연하면서 총여학생회가 그 다른 취향의 여성들이 모두 다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어떤 여성이 담배를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담배 피는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의 재현논리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의 정치는 그런 논리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때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너무나도 다른 다양한 공간에서의 여성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에서 각기 다른 양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단일한 실체로서 6천 여학우가 존재한다는 허구를 깨뜨리는 것이며 소통과 논쟁 속의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서로 너무나도 다른 다양한 공간에서의
 여성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의 위
 치에서 각기 다른 양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단일한 실체로서 6천 여학우가 존재한다는 허구를 깨뜨리는 것이며
 소통과 논쟁 속의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당신의 일상적 모험을 지지합니다



여성이기에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조금만 쪽팔리면 인생이 즐겁다!

- '10만원 여성 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 합합댄스, 풍물패, 사진전 등 여성 문화 그룹과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2. 꼴지 않고 마우스를 잡았을 때...

- 여성들과 컴퓨터가 친해지는 인터넷 강좌를 마련하겠습니다.
- '여성 정보 페스티벌'을 통하여 Cyberspace상에서 여성들의 유쾌한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3. 가을 여성제 - '여우야, 여우야 어디 있니?'를 기억하십니까?

- 여성일이 즐거운 한판 축제의 자리를 올해 여성제에 이어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10만원 여성문화제를 통해 지원을 받은 팀이 창작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도 함께 마련됩니다.



당신의 경험이 정보가 되고, 여성들의 정보가 역사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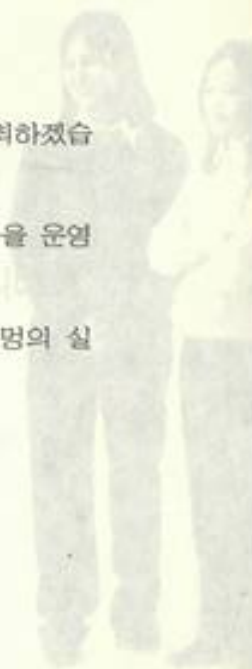
공식적인 영역에서 제외된 여성들의 발언을 넘어서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된 우리들의 경험들을
축적하겠습니다.

1. HISTORY에서 herstory로!

- 학내의 여성에 대한 논의들을 여성학 생활도서관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 여성학 리포트, 조발표 결과물, 여성관련 행사 자료 등
- 수업과의 연계 : 여성문제를 다루는 조발표 모임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 취업을 위한 "뒷구멍 Network" 구축

- 사회에 진출한 새내기 선배 여성들과의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 연결망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인맥 만들기, 뒷구멍의 실질적인 정보 공유하기...



Welcome to Yonsei women's University..?



여성의 요구에 무관심했던 연세.
당신과 함께 바뀌나가겠습니다.

1. 우리들의 쾌적 지수! - 기본은 돼야지~

-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의 마련과 유지를 학교측에 요구하겠습니다.
- 열악한 여학생 휴게실의 환경 개선
- 가로등의 밝기 조절
- 여자화장실의 치안, 쾌적도 향상
- 논지방 개방시간의 탄력적 운영(특히 시험기간)

2. 성폭력 상담소, 있으면 다냐? 성폭력 학칙, 제정만 하면 다 해결되냐?

- 성폭력 학칙을 반성폭력 문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성폭력 상담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개입하겠습니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질적이고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3. '여성학 수업, 버전 업이 필요하다'

- 이름만 다른 여성학 수업, 이제는 지겹다!
-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과 결과를 공개하여 여성학 수업의 내용별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개입하겠습니다.

연세 안의 여성들이 다르지도 같지도 않은 이유



총여학생회에 주어진 자원과 고민을 풀어서 있는
개개의 여성들, 여성의 이름으로 발언하는 집단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1. 총여에 주어지는 예산과 공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총여예산의 20%를 예산자치제로 실시하며 사업별 지원을 하겠습니다.
- 총여학생회실 공간과 세미나실을 예약제를 통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총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자리(한 학기에 1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총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결산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3. 여학우와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더 많은 여학우들과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 학내 외 여성이슈에 대한 알림과 논쟁의 장, '화장실신문'을 만들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여성운동은 가능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당근이지!! 우리 사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여성운동의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노력과 소망이 배여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여성의 전화]나 [가출 여성 쉼터]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벌려 낸 것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공간인 기지촌에서 유색여성들의 인권과 삶의 자리를 보듬으려고 맨 처음 시도를 한 사람들도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사실 가장 종교에 대해 비판적이고,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가부장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소수일지언정 우리 시대의 가난한 이인 여성들의 삶에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자신의 온 존재를 던진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다.

따라서 자못 진지해 보이는 이 질문은 그 동안의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를 무시하는 우문(愚問)중의 우문(愚問)이며, 여성과 함께 하려한 한국 기독교의 사회 참여의 역사에 대한 무시이자 모독이다.

따라서 제 11대 여성창조 기독교 총여가 주최한 '기독교에서 여성운동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심히 해괴하다. '기독교 여성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아니고 '가능한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 질문의 의도는 불순하기 짝이 없다. 사실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지.

‘기독교에서 여성운동은 가능한가?’ 라고.

그러다보니 지난 일년간 '기독교' 총여의 활동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 기억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

**복지는 어디 가고 전도만 남았는가?
여성은 어디 가고 전도만 남았는가?**

기독교 신자가 전도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서의 의무이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마가 16:15)"고 말씀하셨으며, 신약성서의 대

부분은 초대 교회신자들의 '전도 이야기'이다. 전도에 목숨을 거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서 비난받은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히 인간의 구원은 선행이나 사회 참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질 뿐(로마서 3:28)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도가 여성운동일 수는 없으며, 전도가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전도와 여성운동은 '별개'의 것이다.

물론 기독교 신자로서 총여학생회의 간부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전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의 방식은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라는 그리스도교 윤리의 실천을 통해서이지, 당신들의 일방적 윤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형태는 아니어야 한다. 권력 기구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윤리를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강요하는 당신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종교 개혁 이전 중세 카톨릭의 모습을 보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신약성서 그 어디에서 예수께서 윤리를 강요하셨던가. 아홉번 결혼했던 여인을 둘로 치려 할 때 "죄없는 이가 이 여인을 처라(요한 8:8)"고 말씀하시며, 윤리적 율법으로 사람을 심판하려 하던 율법학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반윤리적이고 반율법적인지를 질타하셨던 분이 바로 그 분이시지 않았던지. 자신의 믿음에 도취되었던 그 율법학자들과 당신들의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대들에게 딱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당신들이 솔직해졌으면 한다. 여성에는 큰 관심없고 사실 관심있는 것은 전도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 전도하는 그 자리로. 아마도 나는 광신자가 아니라면 연세대의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다오!!!!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한 기독교 신자 씀





We are counting on the presence of thousands, hopefully millions, of women in the streets in the year 2000!

2000년 세계 여성 대행진에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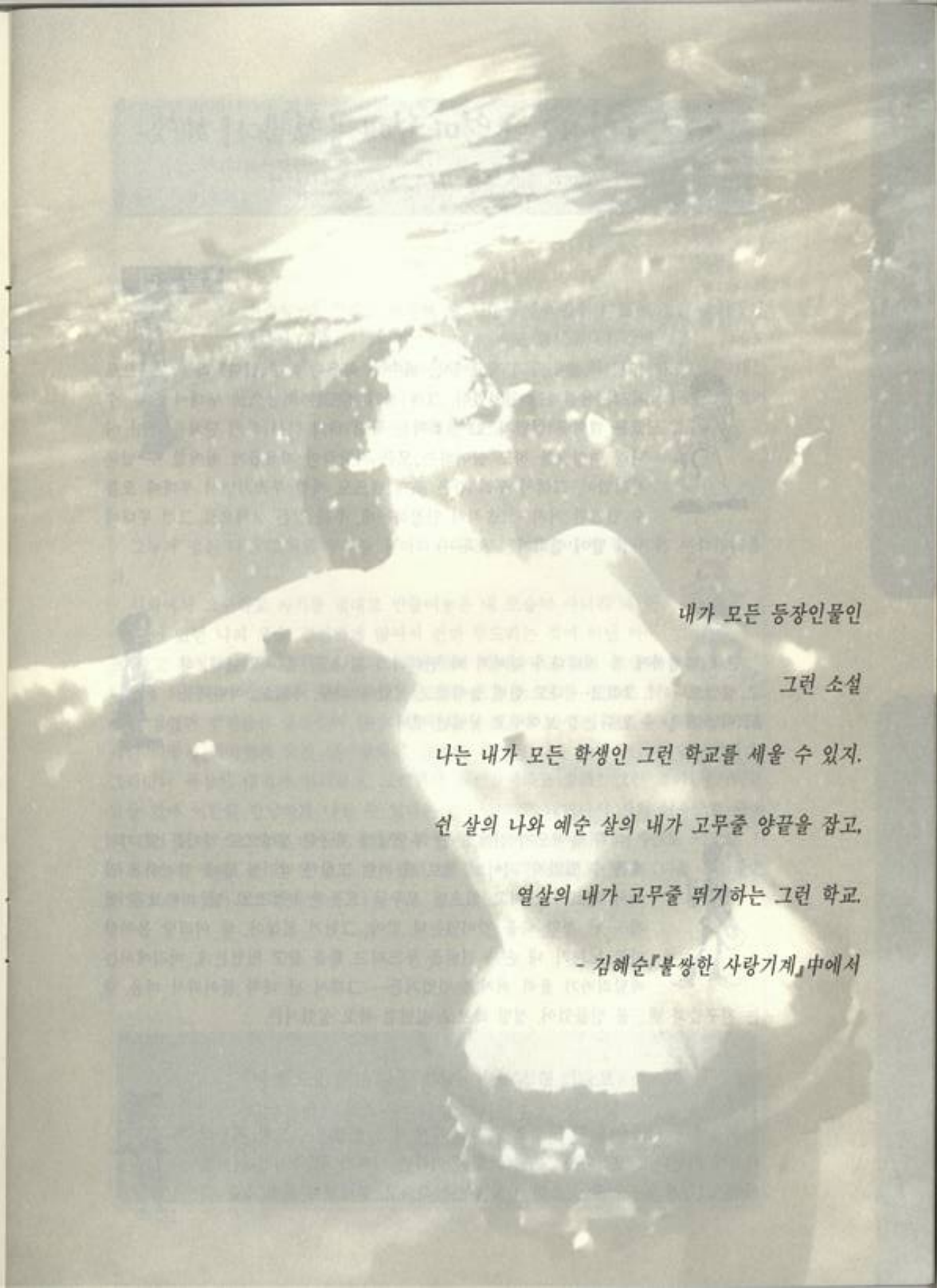
2000년 세계 여성 대행진은!!!
희망과 평등,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행진입니다.

정확히 1년 후,
지구상의 각기 다른 역사를 가진 5개 대륙 곳곳에서
그 다른 역사들을 치유하고 보듬기 위하여
여성들은 말하고 노래하고 소리지르고 행진할 것입니다.

왜 행진을 하나구요?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어떤 면에서, 같은 종류의 피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강도의 노동을 수행하지만 낮은 평가와 임금
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의 육체는 강간, 성폭력, 음력절제, 포르노 산업에 노출되어 있습
니다.
'인권'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여성의 인권'은 사소한 것으로 무시됩니다.

여성들의 투쟁은 평화와 희망을 위하여 '다른 식으로' 싸우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여성인사의 웅변대회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진은 투쟁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노래와 시와 춤, 퍼포먼스입니다.

2000년 10월 19일 UN에서 행진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우리는 이 행진에 함께 할 것입니다.
평화와 희망을 향한 여성들의 한 판 축제의 자리에
당신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모든 등장인물인

그런 소설

나는 내가 모든 학생인 그런 학교를 세울 수 있지.

천 살의 나와 예순 살의 내가 고무줄 양끝을 잡고,

열살의 내가 고무줄 뛰기하는 그런 학교.

- 김혜순『불쌍한 사랑기계』중에서

너 그거 알아? 나 얼마 전에 공연했다! 헤헤~

갑자기 무슨 공연이냐고? 나 밴드 하잖아!

달 리



몇 주전에 우리 학교에서 '여우야, 여우야 어디 있니?' 라는 이름으로 제2회 여성제를 열었었어. 그때 우리 밴드는 처음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이 문화제는 학교 내의 여성 자치 단체들 뿐만 아니라 여성제를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였어. 그래서 우리 같은 초짜 밴드도 개짱 부러가면서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거지~ (솔직히 인정하는데, 우리 같은 실력으로 그런 무대에 올라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되거든... 흑...)

근데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판파라가 됐나? 음... 간단해. 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한번 놀아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도, 여자애들도 이만큼 놀 수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



대학 들어오기 전에도 난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악기를 몇 가지 배울 수 있었지. 피아노, 첼로 뭐 이런 고상한 악기들 말야. 암전하게 앉아서 첼로라도 켜고 있으면 모두들 호뭇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곤 했지... 난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말야. 그런거 있잖아. 왜 머리랑 몸이랑 따로 노는거. 내 손은 건반을 두드리고 활을 잡고 있었는데, 머리에서는 메탈리카가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난 대학 들어와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었어. 정말 해보고 싶던걸 하고 싶었거든.

처음엔... 아빠한테 뭇 모르고 말 꺼냈다가 죽을 뻔했지... 드럼 배우러 학원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만 데 쓸 돈이라면 아빠가 못 주시겠다는 것 이야. 그렇게 두드리고 싶으면 사물놀이나 하라고, 쓸데없이 드럼 같은 걸



왜 배우냐고, 차라리 건반을 배운다면 아빠가 이해를 하겠다고 하시더라.

음... 근데 다른 친구들도 상황이 비슷하더라구. 부모님한테 말도 못 꺼낸 친구도 있었고, 연신 안 어울린다는 이야기만 들었던 친구도 있고... 하지만 우린 밀고 나갔지. 어차피 학원비 낸 거. 배워야지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데!



연습할 때, 그리고 여성제 때 무대에 올라갔을 때도... 정말 즐거웠어. 태어나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애. (물론 걱정도 쏴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암전멀고 점잔 뱉 거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소리지르며 뛰어다니고, 미친 짓 해도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 이리저리 머리 굴려가며 눈치보고 행동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정신 나간 것처럼 무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더라.

사회에서 요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놓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던 나의 모습. 암전하게 앉아서 건반 두드리는 것이 아닌 마이크 잡고 목청 터져라 노래하고 있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구. 끊임없이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고 스스로를 검열해 오면서 쌓였던 먼지들은 일순간에 털려나갔지. 음... 처음에 마이크 잡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되게 난감했었어. 그런데 쏴 있으니까 눈에 띄는게 없어지더라? 그러더니 세상이 내꺼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생기더군. 남들 앞에 이만큼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주위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한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만큼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걸 원 없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난 앞으로 밴드 활동 계속할거야. 실력 없다고, 여자들끼리 무슨 밴드냐고 무시해도 할 수 없어. 난 이게 좋으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여성주의 웹진(가칭 CYborg Generation in Delta Space)을 준비하고 있는 이와의 인터뷰

임시대표 조순지혜(연세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석사 4학기)

로그인 여성주의 웹진을 생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웹진 사실 웹진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민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속에 섬광처럼 떠오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공간을 여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곳에서 여성을 둘러싸고 말해지는 이야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짜여질 수 있는가라는 오래된 물음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리적, 지리적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의도에서 보다는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의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하나의 공간인 '진(zine)'의 형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로그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인터넷 공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웹진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겨난 이 새로운 세계가 지닌 가능성은 지금까지 수업이 논의되어 왔으며 그것의 많은 부분이 아주 타당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나이, 성차, 교육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냐 인식되는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도 여성은 '여성'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남성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와 만나게 되는 불편함에서부터 직접 자신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등 다양한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정보의 양이 급속히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사이트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로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공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웹진 기본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엄청난 익숙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크레프트같은 수많은 게임들만 해도 그렇다. 실제로 많은 남자애들이 게

여성주의 웹진(가칭 CYborg Generation in Delta Space)을 준비하고 있는 이와의 인터뷰입니다



Alice in cyberspace



임을 통해 컴퓨터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대부분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컴퓨터에의 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제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것도 가치중립적인 무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터넷은 우리 여성들에게 더 중요하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공간이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성차별적 공간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그곳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공간이기도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이버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우리도 그 안에서 즐기고 여성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로그인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작업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웹진 아직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넷 사이트들을 꼼꼼히 살펴며 우리의 입장과 언어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아마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2000년 3월쯤에는 인터넷에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 글을 읽는 이들을 많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견고한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전 리포트를 쓰러 단체 컴퓨터실에 갔을 때의 일이다. 옆자리에 앉아 인터넷을 뒤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이 있었다. "월경가지고 페스티발도 하는데 뭘..." 순간, '내가 그걸 기획한 사람인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궁금함이 생겨났다. 그리고서 다시 두가지 생각이 들었다. '아직 월경을 드러내 놓고 말하는 게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과 '그래도 월경 페스티발이 기억되고 있긴 하구나.' 하는 것. 약간의 아쉬움, 그러나 조금의 뿌듯함... 이것이 월경페스티발이 내게 남긴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단순하다고 할까?

사실 한 달만에 그런 큰 행사를 꾸리는 것은 '절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 행사를 기획한 '불턱' 사람들 스스로도 '땀 땅에 헤딩'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니, 그렇다. 실로 땀땅에 헤딩하기처럼 보였고, 실제로 또한 그러했다. 학내 행사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 - 흔히 대중이라 불리워지는 - 을 대상으로 기획한 '한판 축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학교 바깥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쳐 나가야만 했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밑바닥부터 실험해 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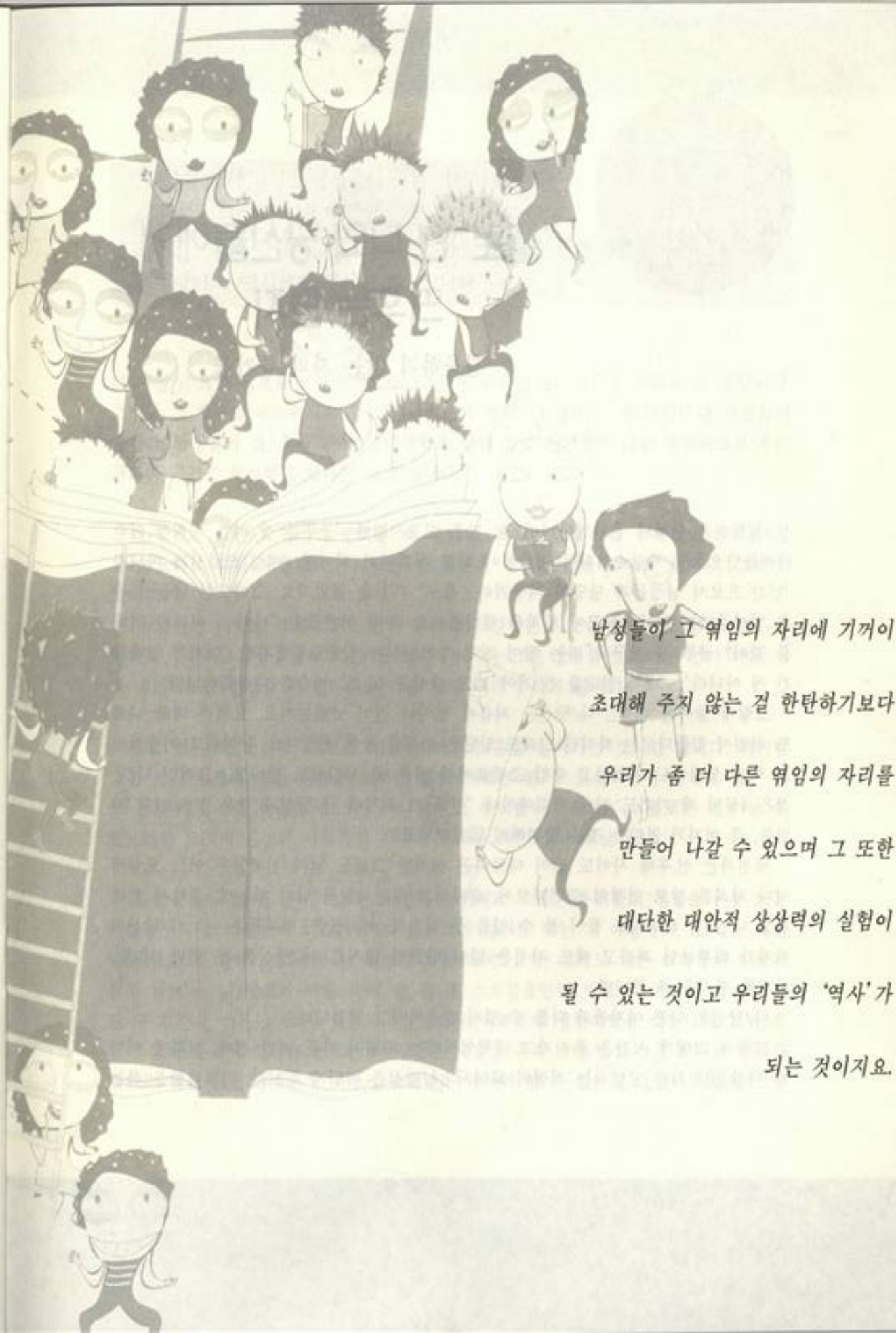
막 시작되는 가을, 날이 저물 무렵에 행사는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 때 고대 운동장에서 객석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2천명정도가 올 거라고 부풀려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몰랐다. 아마 몇 십년에 한번 돌아오는 큰 파도를 눈앞에 둔 서퍼(surfer)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 감출 수 없는 흥분과 함께 스며드는 일정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란 거기 모인 많은 사

'유혈낭자'가 내게 남긴 것

금기시되는 것에 대한 다른 방식의 말하기

람들이 우리가 판을 벌인 '축제'를 어떻게 즐길까 하는 거였다. 거품도 많고 아쉬움도 많은 행사였지만, '불턱'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한 가지는 '이렇게 큰 행사를 내 손으로 만들어볼 기회는 흔치않다'는 것이다. 행사가 끝났을 때 우리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만큼 또다른 동력을 얻고 있었다.

금기를 '파괴하라'고 말하지 않고, '뛰어넘자'고 말하는 '즐거운 한판 축제'... 내가 바라는 '월경페스티발 유혈낭자'는 그런 것이었다. 솔직히 우리의 바람, 새로운 말 건 내기의 방식을 함께 즐기고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명쾌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렵지만 즐거운 수 있는 움직임들 통해 작은 가능성을 본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를 작은 가능성에서 나는 '또 한걸음 나아갔음'으로 힘을 얻는다.



남성들이 그 위임의 자리에 기꺼이

초대해 주지 않는 걸 한탄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위임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그 또한

대단한 대안적 상상력의 실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 맞서서 홀로 당당히
나아가리라는 자세는 간직하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겠다는 무모함은 버리자구요.

이야기(HISTORY)와 다른 그녀의 이야기(herstory)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제까지의 역사를 다르게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당신의 일상적인 경험의 어떻게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당당하게, 홀로, 그러나 아주 혼자만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 하나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함께 돌아 본 우리들의 험난한 취업사. 나/당신들과 똑같이 혼자 열심히 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앞서 걸어간 여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나/당신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다른 나/당신들을 위해서도 그렇지요. 그건 이기적인 것도 노력을 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는 어차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나/당신이 위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살아갈 수 있답니다. 남성들이 그 위임의 자리에 기꺼이 초대해 주지 않는 걸 한탄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위임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그 또한 대단한 대안적 상상력의 실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언제나 '홀로'였던 나/당신들. 이제 그 '홀로'의 의미를 바꾸어 봅시다. 인생에 맞서서 홀로 당당히 나아가리라는 자세는 간직하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겠다는 무모함은 버리자구요. '따로 또 같이' 나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제대로 다르게 한 번 삶을 살아 보지 않을까요?



여성운동은 못생기고 피해의식에 젖은 여성이 하는 것
여성모임은 이러한 여성들이 모여서 남성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것

혹시 여성모임에는 여성 '만' 있고, 남성은 적일 '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그렇다면요, 잠시 접어두세요.

만약 여성모임에 남성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여성모임에서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는 45, 46번째 상염색체, 즉 성염색체가 XY인
헤테로(hetero-잡종)예요.
일명 남성으로 불리고요. 기호로는 아마 '♂'일 겁니다.

아마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겠죠?
여성모임에,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있다니 말이에요.

혹시 '저 사람은 뭔가 딴 생각을 품고 있겠지?'라거나
'저 사람은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냐?'라는 생각은 안하시겠죠? ^^

근데 솔직히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자신있게 '~때문이다!'고는 말을 못해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비록 남성이지만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지내다보면,
'아! 그랬구나'라는
이해하지 '않았던'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나이, 학년, 성별을 떠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성모임에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남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잘 이해하면서 여성운동을 함께하고 있죠.

그 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서 좀 이상하시죠?
여러분과의 작은 오해가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도
'재들은 이상해!'라는 생각은 안하시겠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모임은 자연스레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시죠?

나의 결혼을
알·리·지·말·라

농협

사내부부 대량해고 사건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가 발표한 위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그러나 지난 경제위기 이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해고들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 여성노동자를 경제위기의 1차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해 '해고는 가장 먼저, 채용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기업체의 관행에 분노합니다.

농협은 '98년 한해 372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그 외중에 농협의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협은 2차 명퇴를 실시하여 명예퇴직한 여성 총 1,932명 중 1,056명(66%)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차별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정파괴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의욕상실과 절망감으로 여성노동권의 악순환을 낳게 되었다.

현재 위와 같은 농협의 성차별적 고용조정에 대해 해고노동자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거나 다르다는 주장은

선거관의 지루한 논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일상과 현실정치는 항상 그 위로 펼쳐진다.

목소리만 높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성하고 작은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여성운동은 그렇게 지속되어야 한다.

성폭력 상담소, 있으면 다냐?

성폭력 학칙, 제정만 하면 다 해결되냐?

1. 연세대학교의 성폭력 관련 정책, 이것이 문제입니다!

학내에는 현재 성폭력이나 성희롱 신고 전화센터인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여학생처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여학생처장실로 성폭력 및 성차별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전화로 성폭력 및 성차별의 사례를 접수받는데, 핫라인이나 성폭력 상담소나 여학생처장실로 전화로 사건이 접수되면, 학생과 전화상의 면담을 진행한 후 피해 학생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안에 따라 상담위원회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상담위원회에서 상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 대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별다른 문제없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학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폭력 및 성차별 사건이 처리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너무 놀라지 않게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실제 성폭력 및 성차별 사례가 접수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한 번 봅시다.

(1) 학내 성폭력 상담소 운영: 비전문인 상담자가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처장실로, 상담실이나 핫라인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경우가 있... 개인적으로 나는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심한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을 때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 'y대 여학생처장 인터뷰',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공청회 자료집,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당했던 당사자와의 면담 혹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담자’라는 점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실테지요.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당했던 당사자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 혹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매우 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이들이 상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학내 여학생처 산하 성폭력 상담소에 전문인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올해의 일이고, 이 전문적인 상담 간사가 들어오는 시간은 일주일 중 하루, 게다가 오후 몇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에 들어온 사건의 처리나 당사자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대개 전문적인 상담인이 아닌 여학생처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죠.

‘...성희롱이 진행될 동안 방어하지 못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예방책을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보냈다...’

지난 여름 계절학기 시기 학교 앞 중국집에서 홍보하러 나온 사람 중 하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을 상담했던 사람은 현재 학내 여학생처장으로, 앞에서 스스로 밝혔듯 여학생처장은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받을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희롱이 진행될 동안 방어하지 못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예방책을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보냈다...’

- 'y대 여학생처장 인터뷰',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공청회 자료집,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여학생처장이 그 여학생에게 했던 말은 그녀에 대한 위로도, 여학생처장이 말했던 대로 정신적·의식적인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성폭력의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심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너의 잘못이다’라는 식의 발언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학적·정신적인 상담을 해 주어야 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학생처장이 실수를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 한번의 일로 그렇게 단정해도 될까요? 더 살펴봅시다. 이런 발언이 여학생처장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로 확인됩니다. 작년 가을 성폭력을 당했던 친구가 여학생처 산하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 또한 ‘왜 반항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몸을 한 치도 움직일 수 없었던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그 공포 때문에 성폭력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인 그녀의 잘못인가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법이란 말인가요?

현재 여학생처에서 운영되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전문 상담인이 아닌 비전문가가, 심지어 성폭력 관련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조차 모르는 이가 상담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되어 있는 학교 기관/정책: 빈 수레가 요란하다.

현재 학내에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되어 있는 학교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학생 상벌 위원회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서 학생 상벌위원회는 상담위원회에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부처장이고 단과대 학장이 맡기할 수 있고, 작성된 사건의 경위서가 단과대 학장에게 전달되면 학장이 사안을 보고 학생상벌위원회에다가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있도록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 위원회

학내에서 운영되는 성폭력 신고 전화센터인 핫라인에 전화를 하면, 사례의 심각성에 따라 비상으로 만들어진 상담위원회의 사례를 접수·면담을 합니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학내 보건소나 의과대와 연결되어 사건을 처리합니다. 상담위원회의 상무기관으로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법률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대 교수들이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 상담 교실 개설

여학생처에서는 대학기 성에 대한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99년 여름학기의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성 상담 교실이 열렸습니다. 이 특강에서는 성에 대해 상담하고 의외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진명하고 있으며, 간호대학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상담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해결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곳과 연결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학생처장도 시인하듯, 이러한 기관은 활성화되어 운영되어 있지 못하며 실제로 학생들이 이 기관들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하나를 꼽자면 성폭력 상담소를 포함한 학생 상벌위원회, 상담위원회 등에 접수되었던 여러 건의 사건들이 공론화되지 않고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라 함은 어떤 성폭력 사건에 연관된 이들이 XXX이고, ***이다라는 식의 '가십화'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얼마나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등의 실태를 정확히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및 성차별 사건을 공론화시킴으로서 더 나은 학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 관련 학교 기관에서는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는 것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하며 사건의 발생을조차도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2. 연세대학교 성폭력 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의 조항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교육에서의 성차별 전반에 대해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따른 법령]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각 대학으로 보내어 대학 내 성차별의 예방·대책에 관한 정책에 개입하고 있죠. 여기에 교육부가 주요하게 강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참조)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교육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상담자의 지정 또는 고충처리 제도의 마련 등
- 고충상담원 지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상담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현재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하고 성폭력 학칙에

여학생처 등 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기구의 문제점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곳은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자치기구인 총여학생회입니다.

대해 그동안 활동해온 대학 내 여성모임들에게 문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학서열 1위(?)를 좋아하는 연대 학교측 또한 열심히 핏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동의하고 있는데...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전학생운동으로 대학내 성에 대한 캠페인을 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11대) 총여학생회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윤리 강령을 만들고자 한다. 이 캠페인에는 성폭력 학칙 제정도 포함되어 있다...(11대) 총여회는 유기적인 관계인데, 건전학생운동을 같이 밀고 나간다.(11대)총여가 많은 학생들을 특강에 모아 주는 것, 캠페인 등도 학생들 차원에서 다른 학교의 것을 모아오도록 함으로써 동참시키고 있다."

- 'y대 여학생처장 인터뷰',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공청회 자료집,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색맞추기 정도로 머무를 가능성도 다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충분히 보았듯이 실제 학교측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여학생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2000년 성폭력에 대한 정책은 비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잘못을 질책하거나 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원인을 '건전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지방 학생들의 여학생에 대한 잘못된 자극 혹은 충동'에서 찾는 등 여학생처의 기본적인 성폭력에 대한 마인드에서부터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는 여학생처 등 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기구의 문제점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곳은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자치기구인 총여학생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총여학생회의 역할이 나오는군요. 여학생처의 특강에 '학생들을 모아주고, 자료도 모아주는 일'이 총여학생회의 역할이 아니라 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기구에 개입하여 여성도 두려움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방향을 학교와 논의·협상하고 학교 정책/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총여학생회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문제지점에 봉착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관련 정책/기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성폭력 상담소 및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 관련된 기관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화해야 합니다.
- ◆ 학생·교수·교직원의 3주체가 함께 성폭력 학칙제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반(反)성폭력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은 단일한 정체성을 지닌 완결된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연세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속에는 나름의 독립성을 지닌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그 공간들이 그곳에 기거(?)하는 개인들을, 또 각 개인들은 그 많은 공간들을 오가며 나름의 방식으로 연세 공간을 구성해내고 있다. 신입생과 취업준비생에게, 고시생과 동아리 활동에 열심인 이에게 연세는 결코 동질의 한 공간일 수 없다. 그들 모두는 같은 듯 여겨지는 곳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같은 공간도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은 연세 속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공간구성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준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남성과 여성들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그녀가 남성/여성이기에 각 공간 속에서 자신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규정되고, 또 그 자신이 각 공간을 상이하게 구성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성의 눈으로 공간을 다시 사고하길 원하는 이유이다. 연세의 공간은 나를 구성해내는 하나의 틀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간을 구성해내는 일상- 여학생휴게실, 다시보기

이와 같이 공간을 사고한다면 여학생 휴게실 또한 단순히 학교가 제공하는 편의시설의 하나로 생각할 수는 없다. 시시때때로 나를 규정하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 찾아온 그 공간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다. 내가 찾은 그 곳이 몇 개의 탁자와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나는 공강 시간에 갈 곳 없는 한 학우가 되고, 편안한 소파나 취침용 의자가 놓여있는 곳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잠을 청하길 원하는 이가 되며, 환기가 잘 된 흡연실이 따로 갖추어져 있다면 그곳에서 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담배 피울 곳을 찾아 온 이가 되는 것이다. 여학생 휴게실은 그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학교 당국의 시선이기도 하다.

가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연세대 내의 여학생 휴게실의 상태는 타 남녀공학 대학교에 비교해서도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 몇 평의 쉼한 공간에 몇 개의 소파와 의자만 놓여 있을 뿐이고, 그나마 그런 휴게실도 없는 건물과 단대도 많다. 논지당의 경우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사용가능 시간이 매우 제한

여학생학수업 버전업이 필요하다



적이고, 상주하는 단대가 논지당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은 사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건물에의 여학생 휴게실 설치와 각종 시설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당국이 시혜성의 복지를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복지를 내실있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연세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 대한 학교의 시각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는 것이며 그리고 요구와 문제제기는 그 자체로 여성의 눈으로 연세공간을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난 9월 7일 동두천에서 기지촌 여성인 이정숙씨의 시신이 동거중인 미군 중사와 함께 세들어 살던 방에서 심하게 부패된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를 '단순사고사'로 추정하였으나, 이씨가 평소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고, 사건 당시 이씨가 혼자 있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증거가 발견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이정숙씨 사망사건 비

용하며, 이를 위해 여성은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매매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속에서 매매춘 여성은 경제적 착취로 인한 빈곤한 삶, 남성의 폭력에 너무나 쉽게 노출된다.

이정숙씨는 기지촌에서 매매춘 여성으로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신 분이지만 지난 1월에 있었던 동두천 기지촌 여성 신차금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매매춘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이정숙씨 사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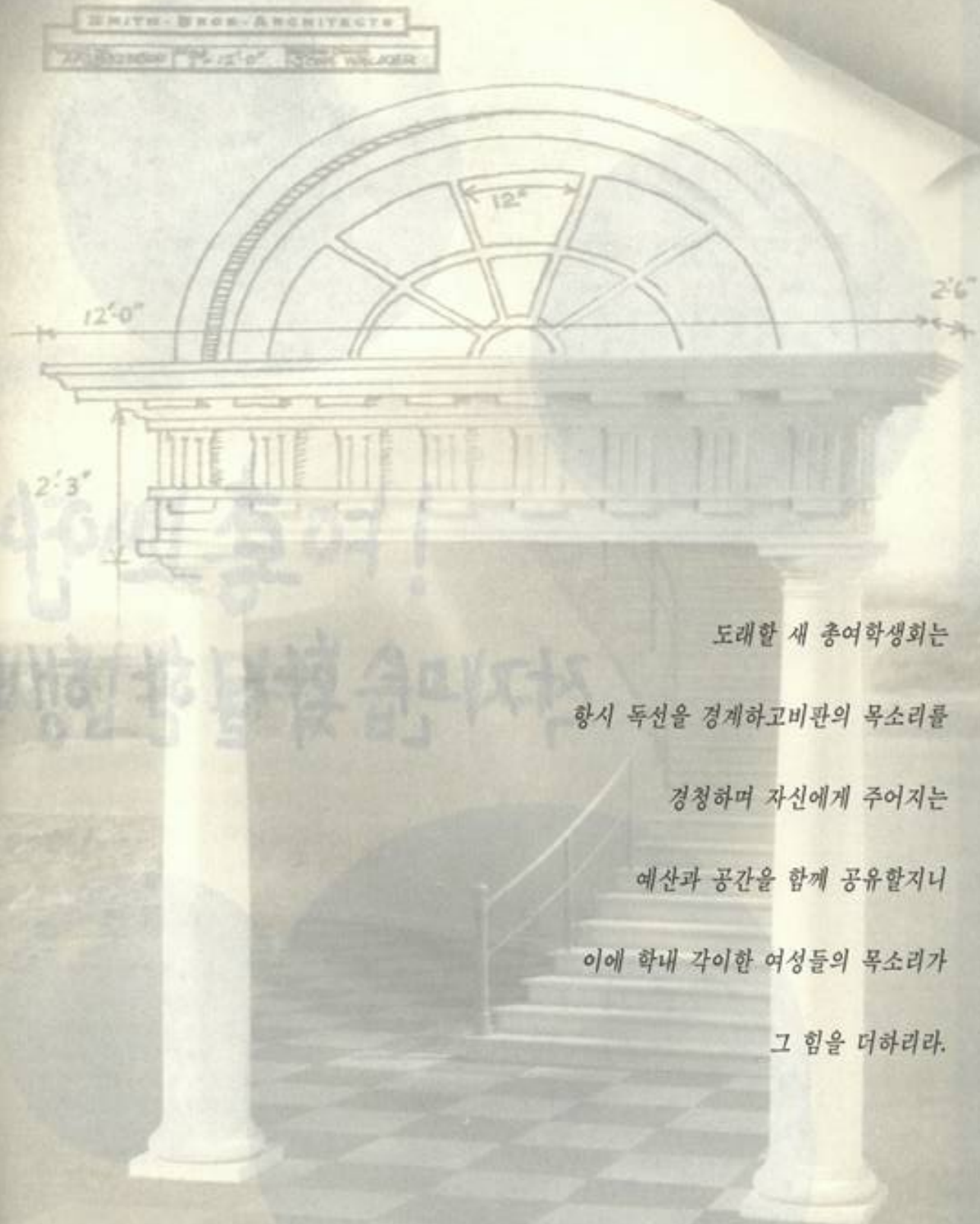
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의 입장

지금까지 기지촌 여성의 사망사건은 '미군' 범죄로만 인식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관계만이 문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담론 속에서 정작 기지촌 여성의 인권은 관심밖이었다.

가부장적 사회는 남성들의 성적 욕구의 분출을 허

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기지촌 여성들은 다시금 항시적인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을 억압하는 폭력의 고리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도래할 새 총여학생회는

항시 독선을 경계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예산과 공간을 함께 공유할지니

이에 학내 각이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힘을 더하리라.

행복 1

“조금만 똑팔리면 인생이 즐겁다!”

10만원 여성문화제
힐링댄스, 풍물대, 사진전 등 여성문화 그들 행사지원
주요 여성제

여성정보 페스티벌, 여성들과의 유쾌한 만남 주선
인터넷 강좌 개설

연결고리들

유형남자 기화단 '불턱'
여성주의 문화실험오임 '꽃' -
'꽃이전신' 실험그룹 '1월'
여성주의문화 연대모임 '바이라스'
달나라 별세모

행복 2

“HISTORY에서 herstory로”

학내 여성에 대한 논의들의 데이터베이스화
수업과의 연계: 여성관련 조별로 수업 지원
여성학수업 모티비얼 결과물 공개 수업내용 차별화

연결고리들

여성학 생활도서관
여학생제 / 여성연구소

행복 6

이젠 기본! 총어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사소한 에기들까지 할 수 있는 공간

학내 외 여성이슈에 대한 의의와 논쟁의 공간
보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정보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링크 홈페이지

타학과 총어학생회
cyborg generation in delta space
달나라 별세모
여성학생활도서관

행복 5

취업을 위한 “팅구멍 Network” 가 필요하다!

사회에 진출한 세내기 선배 여성들과의 워크샵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 언택트만들기, 텅구멍 실질적인 정보 공유

연결고리들

여성민주회 노동센터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여성노동'

로그인 연세총여!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접속되었습니다.

행복 7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자치제 시행 - 총어 전체 예산의 20%

- 학기로 예산자치제 kkkkk 제안하고, 사업비 지원

공간자치 시행

여대: 총어학생회실 (작은방 2, 큰방 1, 구 생활대 뒤 공동세미나실)

어빌게: 여대제 (한달 기준으로 TIME TABLE 작성)

대상: 여성학 관련 수업 조모임, 공간이 없는 여성자치단체

총어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자리 마련

여 - 결산공개

행복 4

여성의 권적저수! —

학교에 요구합니다!

영양한 여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학내 가로등 밝기 조정

여자화장실의 치안, 권적도 향상

농지담 개발시점의 권적적 운영

(독해, 시험기간)

행복 3

성폭력! 이제 그만!

성폭력 상담소 제 기능을 다하게 개입

성폭력 학칙을 반성폭력 문화 확대에 실질적 기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연결고리들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자치단체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학내지원팀

여학생 제 / 성폭력 상담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개최를 위한 학생법정(가칭)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이하 2000년 법정)이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노예문제이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유산인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위안부' 제도가 일본정부에 의한 여성에 대한 국가 범죄였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여성들에 의한 '위안부' 전범자를 처벌하는 법정을 열기로 한 것이다. '2000년 법정'은 국가 차원의 권위가 실리거나 구속력이 있는 실제 법정이 아니라 '시민법정'의 성격을 갖는다. 2000년 법정은 2000년 세계인권의 날과 태평양전쟁 시작의 날인 12월 8일을 전후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필리핀 등 각국의 시민단체와 개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법정을 준비중이다.

'2000년 학생법정'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처벌의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2000년 법정과 같은 지향을 갖고 여성인권과 평화가 숨쉬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해 열린다. 2000년 학생법정은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반대와 심판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학생법정이 전문가적 식견으로 진행되는 반면 학생법정은 대학여성운동이라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국제 연대의 모색과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론회라는 학술적 측면에서 진행된다.



이안

함께한 사람들



동거

■ 정후보 : 강김정임/독지(문과대 인문학부 97)

부후보 : 김임은정/이안(사과대 신문방송 97)

■ 이괄말 : 한찬지영/이다(문과대 인문학부 96)

■ 매체팀

· 생각말

김이학실/문(사회과학 계열 98)

최정환별/열우(사과대 신문방송 97)

· 알힘말

박성옥수/수리(사과대 행정학과 97)

김강지영/짜몽(문과대 인문학부 97)

신박나리/다다(사과대 신문방송 96)

■ 행정팀

이이정선/따거(문과대 인문학부 96)

김성영림/미로(생과대 아동학과 95)

서이경희/깜(법과대 법학과 98)

정임은주/레리(문과대 인문학부 97)

정경임 / 피카(문과대 인문학부 97)

김이은경/Ox(법과대 법학과 99)

김정다래/쏘아(법과대 법학과 99)

안김보영/안보(사회과학계열 98)

오김선아/모비(문과대 인문학부 99)

변구영환/꾸리(사회과학계열 98)

이박필문/야난(간호대 간호학과 98)

■ 역음말

장임수지/솔래(문과대 인문학부 98)

윤실대원/청자켓(사과대 신문방송 97)

정이어진/레드(의과대학 의학과 97)

■ 아을말

김서현주/예감(문과대 유럽어문학부 98)

이김운정/다나(법과대 법학과 98)

최윤지경/후추(법과대 법학과 99)

김이소연(법과대 법학과 99)

이김나영/진진(문과대 인문학부 99)

이김경진/달리(문과대 인문학부 99)

김김희정/새울(문과대 인문학부 99)

이이세란(문과대 인문학부 97)

김정지희(사회과학계열 99)

조안정심(사회과학계열 99)

이김미정(사회과학계열 99)

이이민정(사회과학계열 99)

임윤현정(사회과학계열 99)

이권재욱(사회과학계열 99)



구름



미강



자몽



다나



다나



와



레드



다다



동거



개